

# 애틀랜타 연쇄총격 한인여성 4명 사망

### 용의자 21세 미국 백인 남성 마사지숍 등 돌며 총격 8명 희생 아시아계 중요범죄 가능성 수사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일대에서 연쇄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숨졌다.

아시아계 주민들을 향한 인종차별적 혐오가 최근 위험 수위에 이르렀다는 우려 속에 사망자 중에는 한국계 여성 4명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돼 총격을 더하고 있다.

미국 CNN방송 등 현지언론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오후 5시께 애틀랜타 근교 체로키 카운티에 있는 마사지숍 '영스 아시아 마사지 팔러'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나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 현장에서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으며 병영으로 옮겨진 부상자 3명 가운데 2명은 나중에 사망했다. 체로키 카운티 경찰은 사망자가 아시아계 여성 2명, 백인 남성 1명, 백인 여성 1명이고 부상자는 히스패닉 남성 1명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5시 50분께에는 체로키 카운티에서 48km 떨어진 애틀랜타 북부 피드먼트로에 있는 '골드마사지 스파', '아로마세라피 스파'에서 유사한 총격사건이 발생했다. 애틀랜타 경찰은 이들 두 곳에서 숨진 4명이 모두 아시아계 여성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합하면, 모두 세 곳의 마사지숍, 스파에서 발생한 총격으로 총 8명이 숨졌고, 이중 6명이 아시아계로 보인다는 것이 현지 경찰의 발표 내용이다. 한국 외교부는 이 가운데 4명이 한국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들 4명이 한국 국적을 보유했는지 여부는 추가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쇄총격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는 20대 백인 남성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용의자 로버트 에런 롱(21)을 애틀랜타에서 남쪽으로 240km 떨어진 크리스프 카운티에서 이날 오후 8시30분께 체포했다. 수사당국은 롱이 이날 애틀랜타 일원에서 발생한 세 건의 총격사건을 혼자 모두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애틀랜타 경찰은 사건 현장의 감시 카메라에 담긴 범행 방식을 고려할 때 같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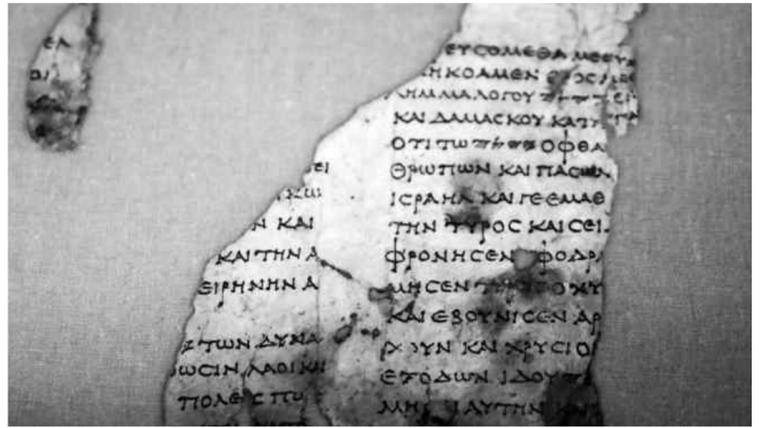
용의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증오범죄가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체로키 경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범행동기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며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내 아시아계 이주민체인 '아시아 아메리칸 애드보커시 펀드'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아시아계는 인구의 4%인 50만여명으로 집계된다. 조지아주 주도인 애틀랜타는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미남동부 최대 도시다. 현재 미국 전역에서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을 겨냥한 반감이 커진 상태다.

AFP통신은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가 급증하는 가운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아시아계가 운영하는 업체가 의도적으로 표적이 됐다는 큰 우려가 촉발됐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아시아계를 겨냥한 증오범죄의 우려 때문에 미국 수사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국 뉴욕 경찰의 대테러국은 조지아주 사건을 관찰 지역이 아님에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이스라엘 동굴서 발견된 1900년 전 성경 사본 조각 최근 이스라엘 예루살렘 인근 사막 동굴에서 발견된 2세기 당시 성경 사본 조각이 16일(현지시간) 예루살렘 문화재청 연구실에 보관되고 있는 모습. 이스라엘 문화재청에 따르면 예루살렘 남부 '유대 광야'의 동굴에서 발굴된 20여 개의 양피지 조각에는 구약성서의 스가랴서와 나훔서의 일부가 그리스어로 적혀 있다. 문화재청은 이 조각들이 1900여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 “러시아, 작년 美 대선서 ‘트럼프 당선’ 공작”

### 미국 정보국 보고서…“푸틴이 지시”

작년 미국 대선 국면에서 러시아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고 조 바이든 당시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도록 하는 정보 공작을 벌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CNN방송은 미국 국가정보국(DNI)이 미국의 '적성국'이 작년 대선에 개입하기 위해 벌인 공작 활동을 평가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CNN이 보도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국, 이란 가운데 러시아 측의 공작이 두드러졌다.

러시아 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서 경쟁자였던 바이든 후보에 대한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대규모로 유포했다. 이런 러시아발 허위 정보와 음모론을 트럼프 전 대통령뿐 아니라 그의 측근까지도 공개적으로 동조하고 나서는 '성과'를 거뒀다고 DNI는 평가했다. 실제로 이런 공작에 가담한 러시아와 연결된 인사들이 트럼프 대

통령의 측근과도 접촉했다는 사실도 파악됐다.

또 러시아 정부가 미 대선 두 후보를 표적으로 삼은 공작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제도에 대한 미국인의 신뢰를 깎아내리고 사회 분열을 조장하는 목표도 있었다고 결론 냈다.

DNI는 이 보고서에서 "미 대선 국면에서 러시아가 벌인 공작의 핵심 요소는 러시아 정보기관과 연결된 대리자들을 이용해 바이든 후보를 방해하는 근거없는 정보와 의혹을 미국 언론과 정부 관리, 유력인사, 트럼프 전 대통령의 측근에 주입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런 공작을 인지했고 2016년 미 대선과 마찬가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 바이든 후보를 공격하는 정보 작전을 직접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추측했다.

CNN은 이에 대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그랬을 것으로 널리 짐작됐고 가까스로 감춰졌던 바"가 확인됐지만 외국 정부의 간섭에 대응하는 미국 정부의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고 해석했다. /연합뉴스



'영국판 강남역 살인사건' 항의 시위 영국 런던에서 16일(현지시간) 벌어진 이른바 '영국판 강남역 살인 사건' 항의 시위 도중 한 여성이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최근 런던에서는 30대 여성 새러 에버러드가 귀갓길에 현지 경찰관에게 의해 납치·살해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그를 추모하고 정부 당국에 여성 보호 대책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뉴스

## 입주민 퇴거없이 리모델링… ‘건축계 노벨상’ 프리츠커상 수상

프랑스 건축가 안 라카통·장필립 바살

입주민을 퇴거시키지 않고 아파트를 리모델링한 프랑스의 건축가 2명이 건축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프리츠커상을 받았다.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안 라카통(65)과 장필립 바살(67)이 올해 프리츠커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보도했다. 파리 외곽 몽트뢰유를 근거로 활동하는 이들은 재건축과 리모델링 분야에서 한 획을 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들

은 낡은 건축물을 허물지 않고 기존 구조물을 활용해 생태·기술적으로 혁신적인 건물을 만들었다.

바살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건축 철학에 대해 "절대 건물을 무너뜨리지 않고, 나무를 자르지 않고, 꽃을 꺾지 않는다. 원래 있었던 물건들의 추억을 소중히 여기고, 그곳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설명했다. NYT는 2012년에 끝난 파리의 미술관 팔레스트 도요의 리모델링 작업에서 이들의 건축 철학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들은 1937년 파리 만국박람회 때 사용했던 건축물에 가공되지 않고, 미적으로 단순한 재료들을 지하 공간에 투입해 공간을 확장했다. 1960년대에 건축된 파리 외곽의 아파트 부아르프레트르 타워 리모델링도 대표작으로 꼽힌다. 이들은 기존의 바닥을 확충해 각 가구에 발코니를 설치하고 방의 면적을 늘렸다.

2017년 보르도의 530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선 입주민을 퇴거시키지 않고 공사를 마쳐 화제가 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 폭스콘 “미국·멕시코서 전기차 생산 검토”

애플의 아이폰을 조립·생산하는 대만 업체 폭스콘이 미국이나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생산할 방침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로이터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폭스콘 모회사 흥하이 정밀공업의 류양웨이 회장은 이날 타이베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 위스콘신주 공장도 유력한 전기차 생산 후보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류양웨이 회장은 정치적인 면을 배제하고 경제적인 면만을 고려해 6월까지 전기차를 어디에서 생산할지 최종 결정할 것이라며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폭스콘은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백악관 행사에서 위스콘신주에

100억달러를 투자해 TV 용 스크린 등을 제조할 '폭스콘 테크놀로지 그룹 캠퍼스'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위스콘신주 주지사가 공화당에서 민주당 인사로 바뀐 뒤 세제 혜택 등의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지면서 폭스콘이 계획한 공장 규모도 축소된 상황이다. 한편 류양웨이 회장은 애플가 생산 가능성을 묻는 말에 "소문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세계 최대 전자제품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기업인 폭스콘은 이르면 2025년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0%의 점유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최근 제시했으며 지난해에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피스커와 공동으로 전기차를 생산 판매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연합뉴스

###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가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